특 집

'89 낙농육우산업을 결산한다.

사료산업 편

관세·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시급

김 치 영
한국사료협회 조사과장

1. 배합사료 생산동향

80년대 우리나라 배합사료 생산은 70년대의 고성장이 이어지면서 폭발적인 수요증가 추세를 보이며 지난해까지 년평균 14.3%의 생산증가율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 '86년 19%를 기록한 이후 '87년에는 17.5%, 지난해에는 8%, 금년에도 10%이하의 저성장을 나타내고 있어 그동안 3~4년, 또는 4~5년 주기로 나타나던 일시적인 조정인지, 1,00만톤을 기점으로 예상되던 저성장시대의 예고인지 앞으로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년 9월말 현재의 배합사료 생산량은 7,133,929톤으로, 지난해 동기실적인 7,681,575톤에 비해 7.7% 증가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금년도 배합사료 총생산량은 년초 수급계획에서 예상했던 1,032만톤을 다소 상회하는 1,050만톤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축종별로 보면 '70년대 이후 고성장 추세를 보이던 양계용 사료생산은 '80년대 들어 점차 성장이 둔화되면서, 금년에는 3.4%의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

다. 80년대 들어 급격히 증가했던 비육우용 사료생산도 쇠고기 수입 등으로 인해 국내 비육우 산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87년을 고비로 점차 하향 국면으로 전환되어 금년에도 3.8%의 낮은 성장율을 보이고 있고, 낙농용 사료도 6.7%의 저성장에 머물고 있다. 단지 '80년대 중반이후 크게 증가해오던 양돈사료와 기타사료만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여, 금년에도 9월말 현재 양돈사료가 18.8%, 기타사료가 43.0%의 고율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양돈사료의 경우 금년부터 양돈불황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이같은 불황이 단기간내 조정될 가능성이 희박함에 따라 앞으로 성장이 둔화될 전망이다.

〈표 1〉 년도별 배합사료 생산동향

단위 : 톤, %

구 분	양계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용		기 타		계		전년대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생산량	구성비	증가율
'71	613,153	87.3	19,919	2.8	33,186	4.7	7,184	1.0	28,668	4.1	702,110	100	
'72	646,328	83.2	48,317	6.2	52,980	6.8	6,194	0.8	22,417	2.9	776,236	100	10.6
'73	685,330	75.3	121,822	13.4	82,544	9.1	5,412	0.6	14,512	1.6	909,620	100	17.2
'74	554,433	59.8	188,828	20.4	122,409	13.2	45,347	4.9	16,153	1.7	927,170	100	1.9
'75	568,566	63.1	135,505	15.0	150,671	16.7	33,495	3.7	12,758	1.4	900,995	100	−2.8
'76	867,818	62.8	207,074	15.0	174,004	12.5	43,549	3.2	90,081	6.5	1,381,526	100	53.3
'77	1,154,924	60.8	350,236	18.5	265,707	14.0	95,528	5.0	32,295	1.7	1,898,690	100	37.4
'78	1,638,554	60.5	498,110	18.5	320,728	11.5	233,088	8.5	2,625	1.0	2,693,105	100	41.8
'79	2,043,569	52.6	1,129,895	29.1	438,512	11.3	266,206	6.9	2,053	0.1	3,880,235	100	44.1
'80	1,871,852	54.1	769,357	22.2	513,541	14.8	306,333	8.8	1,335	0.0	3,462,418	100	−10.8
'81	1,842,072	52.8	761,204	21.8	470,831	13.5	414,699	11.9	1,650	0.0	3,490,456	100	0.8
'82	1,979,841	44.8	1,150,528	26.0	592,346	13.4	692,739	15.7	4,347	0.1	4,419,801	100	26.6
'83	2,245,621	38.4	2,013,007	34.4	709,936	12.1	870,595	14.9	12,427	0.2	5,851,586	100	32.4
'84	2,064,866	34.5	1,987,411	33.2	852,589	14.3	1,072,394	17.9	7,699	0.1	5,984,959	100	2.3
'85	2,309,726	35.8	1,923,692	29.8	994,282	15.4	1,209,042	18.7	14,330	0.2	6,451,072	100	7.8
'86	2,639,176	34.4	2,178,297	28.4	1,208,477	15.7	1,624,251	21.2	25,040	0.3	7,675,241	100	19.0
'87	2,933,024	32.5	2,953,297	32.7	1,404,234	15.6	1,673 467	18.6	54,207	0.6	9,018,229	100	17.6
'88	2,947,385		3,603,712		1,608,423		1,511,624		96,026		9,767,170		8.3
'88 (1~	2,249,416	31.5	2,521,852	35.4	1,170,199	16.4	1,125,036	15.8	67,426	0.9	7,133,929	100	
9)	2,173,195	28.3	2,995,826	39.0	1,248,396	16.3	1,167,683	15.2	96,475	1.3	7,681,575	100	7.7
'89 (1~ 9)													
전년대비 증감	−3.4		18.8		6.7		3.8		43.0		7.7		

이상과 같이 최근들어 배합사료 생산이 점차 둔화되고 있고, 축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육류소비의 증가도 점차 둔화되고 있어 금년과 향후 2~3년이 그동안의 고성장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과도적 의미를 갖게될 것으로 내다보는 견해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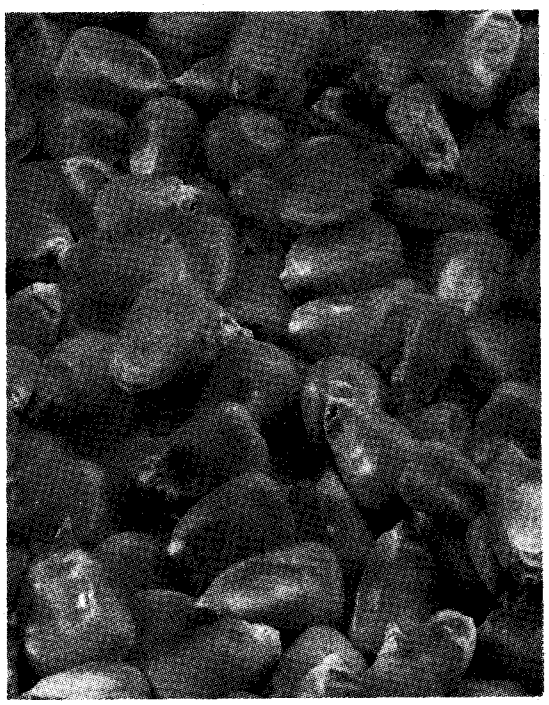
한편 이상의 사료생산추이 분석과는 별도로 실질적인 사육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축협중앙회에서 관측한 축종별 사육두수를 보면 한(육)우는 '89년 9월 현재 1년전보다 4.5% 감소하였으며, 내년 3월까지 계속 감소하리라는 전망이다. 또한 돼지도 '89년 9월 현재 지난해보다 9.5% 증가하였으나, 최근의 양돈불황과 모돈 두수감축, 환경오염단속 강화 등으로 점차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밖에도 산란계는 지난해보다 1.1% 증가하였으나, 앞으로는 현상유지가 예상되며, 육계는 11.9%가 증가하였으나 연말까지는 다소 감소하다가 내년들어 다시 증가하리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상의 가축사육동향을 보면 사료생산 추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당분간 사료생산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 사료원료 사용동향

금년도 배합사료용 원료 사용동향을 보면 곡류의 사용비율은 '8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해오다 '84년 66.6%를 기록한 이후 정부의 외화절감시책의 일환으로 곡류쿼터제와 곡류사용비율 억제조치를 취함에 따라 정부의 억제선인 60~63%선을 유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곡가파동 이후 고가의 곡류사용이 줄고, 강피류와 식물성 박류 등으로 대체되면서 최근에는 56.9%선까지 낮아졌다.

반면 곡류사용비율과는 역으로 강피류 사용비율은 '80년대 들어 꾸준히 감소해오다가 '84년 이후 정부의 곡류사용비율 억제 조치이후 다시 증가하였고, 금년에는 곡가상승으로 인해 17.0%까지 높아졌



다. 이같은 강피류 사용량의 증가는 소맥피 사용증가가 주요인이지만, 최근에는 강피류 기타 항목으로 집계되고 있는 타피오카 사용증가도 한몫을 하고 있다.

또한 식물성 박류 사용실적은 '80년대 들어 동물성단백질 공급이 원활치 못함에 따라 사용비율이 점차 증가해 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사료용 소맥수입마저 끊어지게 되자 식물성 박류사용비율이 17.3%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지난해 이후 소맥수입이 줄고, 타피오카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부족한 단백질원을 충족시키기 위해 식물성 박류사용이 크게 증가하게 되었다. 반면 동물성 단백질원료의 사용비율은 '80년의 2.7%에서 1.4%까지 크게 낮아졌다. 동물성 단백질의 경우 수요는 있으나, 주원료인 어분, 육골분의 수급불안정과 가격상승 등으로 타원료로 대체되고 있다. 앞으로도 동물성 단백질 사용 비율은 어분 및 육골분의 수급제도가 시급히 개선되지 않는 한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한편 주요 원료별 사용동향을 보면 금년도 9월 까지의 옥수수 사용비율은 곡류사용량의 77.1%로 전년동기의 60.9%에 비해 16.2%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수수는 지난해 거의 사용되지 않았으나 금년들어 사용이 크게 증가하여 10월현재 전체 곡류중 1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상반기이후 크게 줄고 있다. 이처럼 곡류 가운데 옥수수와 수수 사용비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반하여 소맥은 6.3%로 전년동기의 33.3%에 비해 27.0%포인트 하락했다. 또한 강피류중 기타 항목으로 집계되는 타피오카 사용량은 금년들어 가장 크게 늘어난 원료로 지난해 사용량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식물성 박류 중 대두박은 전년대비 7.1% 포인트 감소한 반면, 채종박과 기타 박류사용량이 크게 늘고 있다. 동물성 단백질중 어분은 2.3% 증가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그밖에도 사료용원료중 알팔파가 점차 실용화 되면서 양축단체가 직접 수입 축우 사료로 이용하고 있으며, 배합사료 원료로의 이용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사료용 원료사용 동향은 금년말까지도 커다란 변화없이 비슷한 추세로 진전되어, 옥수수, 타피오카 사용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수수, 소맥등의 사용은 감소될 전망이다.

3. 원료 및 제품가격 동향

'84년 이래 생산증가와 과잉재고로 인해 저곡가 시대를 누려오던 세계 곡물 시장은 지난해 미국을 비롯한 몇몇 생산국들의 한발피해로 인해 일시에 과잉재고가 해소되면서, 고곡가 시대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금년초부터 곡류가격이 강세를 보여왔고, 최근 세계의 곡창인 미국의 생산증가로 인해 곡가가 안정되는 듯 싶었으나, 최근 다시 수요증가 등으로 인해 강세 기조를 유지해 오고 있다.

주요 사료용 원료들의 시장 동향을 보면 우선 옥수수의 경우 금년들어 미국의 시장지배력이 강화되면서 과거 우리나라의 주요 수입선이었던 중국과 태국은 수출여력이 감소하고, 가격 경쟁력을 상실하여, 일부 물량을 수입해 오는가하면, 일부 수출 물량 마저도 동남아 인근 국가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태국은 최근들어 자국내 축산진흥과 관련하여 옥수수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소련 수출에 치중해 오던 아르헨티나도 근래들어 수출 여력이 크게 감소하면서 옥수수 수출이 줄고 있다. 단지 남아공만이 생산증가를 배경으로 수출에 적극성을 띠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금년들어 남아공 옥수수가 일부 수입되었다.

옥수수의 경우 국내시장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반하여, 수수는 금년들어 중국이 시장을 주도해 왔다. 상반기에는 미산 옥수수보다도 훨씬 낮은 가격에서 시세가 형성되어 구매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나, 하반기 들어서면서 부터는 점차 가격갭이 줄어들면서 메릿트를 상실하였다. 앞으로도 당분간 옥수수와의 가격갭이 크게 벌어지지 않는 한 수수 구매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료용 소맥은 지난 4~5년 동안 미국의 옥수수 수출을 견제해오며, 호주→카나다→EC로 시장주도권이 바뀌었으나, 지난해를 고비로 수출여력이 줄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출경쟁력을 상실하였다. 그러나 최근 카나다의 사료용 소맥 공급가능성이 업계에서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미산 옥수수 가격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결국 금년도 사료곡물시장은 미산 옥수수가 지난 수년동안 카나다, 호주, 태국, 중국 등의 기타 곡물에 의해 잠식당했던 한국 시장을 재탈환하는 한해가 되었으며, 가격은 강세에서 출발하여, 약세로 가다가, 최근 다시 강세시장으로 전환되고 있다.

곡류와 마찬가지로 소맥피, 대두박, 채종박, GPS등 대부분의 부원료들도 년초에는 강세로 출발하였다가, 그후 약세를 보이다가 최근 다시 강세시장으로 돌아서고 있다. 이는 곡류 가격 상승에 따른 영향도 있지만 근래들어 부원료 수출국들의 재고 감

소와 자국내 수요증가 등이 주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금년도 배합사료 가격은 원료시장 동향을 감안하여 년초 한차례 가격인상이 있었으나, 그후 원료가격이 안정되면서 3월이후부터는 내내 보합권에 머물러왔고, 얼마전에는 일부회사에서 기습적인 가격할인까지 등장하였었다. 그러나 최근들어 다시 원료가격이 상승기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배합사료 가격은 안정적인 보합권내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4. 사료정책

금년들어 크게 변화된 사료정책으로는 축사물 및 배합사료의 수입개방과 곡류쿼터제도의 완화 등을 들을수가 있다. 지난 수년동안 우리나라 사료업계의 자율적이고, 경제적인 사료배합을 저해해오던 곡류 쿼터제도와 곡류 사용비율제도 등은 금년부터 대폭 완화됨에 따라 일단은 곡류 쿼터제도에 따른 업계의 불만은 해소된 셈이다.

또한 금년부터 양돈용, 축우용 등 모든 배합사료가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지정됨에 따라 배합사료의 완전개방 시대를 맞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그동안 수입개방을 늦추어 오던 국내 축산물에 대한 수입일정도 구체화됨에 따라 배합사료의 국제경쟁력 강화가 발등의 불이되었다.

이같은 변화 여건하에서 배합사료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축가단체와 사료업계의 요구는 어느 해보다 많았으나, 앞서 언급한 쿼터제도의 운용만이 완화되었을 뿐, 모두 미해결상태로 남아있다. 일부 식물성박류와 강피류 등 사료원료의 관세가 인하되긴 하였으나, 대신 수수, 호밀 등이 상향적용되게 됨에 따라, 오히려 균일관세를 실현코자 하는 업계의 의도와는 전혀 달리 되어버렸고,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문제도 재무부처의 반대로 인해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배합사료 및 축산물의 수입개방에 선행해서 이루어졌어야 할 원료 수입규제에 대한 해제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 대두박, 육골분, 어분 등은 적기 적량 구매가 어렵고, 사료용대맥등은 수입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1989년은 배합사료 1,000만톤 시대와 개방시대라는 우리나라 사료산업 발전사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한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사료정책의 지원은 미흡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같은 요구는 국내 축산업이 포기되지 않는한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수입개방시대에 대응하여 보다 시급히 국내 사료업계에 대해서 외국과 동등한 여건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종 축산물인 육류가공제품이 물밀듯이 수입되고 있는 현시점하에서 중간 생산재인 배합사료가 경쟁국에 불리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물고 원료 사용상의 규제를 받고, 국산 원료를 이용하는 것은 형평조건에 어긋난다. 우리나라 사료산업의 가장 당면한 과제는 개방화시대에 걸맞는 축산·사료정책의 수립이다. 그동안은 애국이란 입장에서 이해되던 축산·사료정책이 이제는 경쟁국을 도와주는 입장이 되고, 국내 축산업과 사료산업에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